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기호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은 2016년부터이다. 그해부터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입정원이 더 많은 사회에 접어들게 되며, 생산 가능 인구 또한 하강곡선을 그리며 감소하게 된다.

그것을 감내해줄 사회적 인구 유입 증가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최소한 몇 년이라도 더 지연시킬 수 있을 거란 얘기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 대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유

로 임하고 있는 것은 대개가 비수도권 지자체들이고, 장학제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방대학들이다.

따지고 보면 2016학번이 되는 친구들이 태어난 해는 바로 1997년, 이 땅에 가브리엘 천사처럼 IMF 구제금융이 당도한 해였다.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분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 땅의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싶다면 우선 그 시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같이 외환보유고가 세계에서 몇 번째이니 우리끼리 서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땅에 남기고 간 IMF의 내상은

결코 간단치가 않은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이 땅의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라거나 '대학 나세요'라는, 이전까지는 너무 속물처럼 여겨져 금기시되어왔던 카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기 시작한 것도 그맘때쯤이었고, 노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시골 고향집에 아이만 달랑 맡기고 사라지는 편부모의 숫자가 늘어난 것도, 모두 그 즈음의 일이었다.

집 안에 있는 금불이까지 싹삭 끌어모아 보다 빨리 IMF 체제를 극복하려 노력하다 보니, 이런, 어느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는 '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는 계속 '돈'이었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그 이전까지는 최소한 그런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신문만 살펴봐도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우리 시대의 화두는 '이념'이나 '민주'였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속물적인 화두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구제금융의 트라우마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아예 '투자 대비 창출 효과', 혹은 '은행 복리 계산법'으로 뒤바꿔놓았다. 간단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지자체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몇 백만 원을 건넸다 해도, 보육료 지원을 얼마씩 인상한다고 해도, 이견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계산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에 익숙해진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IMF가 남기고 간 이 땅의 내상이자, 트라우마이다. 어쩌면 이제 우리들 역시 예전 일본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종종 했던 말, 마하르로 '경제동물'들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런 화두들이 계속 지속되고 강화된다는 데 있다. 월례로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세종시의 원인이 뒤집히는 결정적인 논리들은 무엇인가? 효율과 경제성이 아니냐? 그 역시 다뤄볼 만한 사항들이지만, 사실 원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눈에 띄지 않는 가치들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의 가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그런 지향점 아래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는 것 같다.

출산하는 부부에게 원형지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공급해보라. 성급하게 예견할 순 없지만, 효과는 기대이상일 것이다.

<소설가·광주대 명예장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실업률 급등... '일자리 빙하기' 현실화 되나

1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3%대에 머물던 실업률도 5%대로 치솟았다고 한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자리 빙하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1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8천명이나 증가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1년 3월 이래 8년10개월 만이며, 규모로는 2000년 2월(122만3천명) 이후 9년11개월 만에 최대치다. 실업률도 5.0%로 전년 동월보다 1.4%포인트나 올라 2001년 3월 5.1% 이래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실업률의 급등은 그동안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대거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한국이 누려온 3%대의 안정된 실업률 통계를 허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실제로 쉬는 사람,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해 직장

을 갖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실상의 실업자가 45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치도 있다.

실업문제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다.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마저 양산된다면 가계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현안이 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같은 대책만으로는 어렵다. 고용보조금이나 인턴제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 정부는 일자리 대부분이 생기는 중소기업 육성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완화,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제조업 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복지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 척결 단속만으론 한계 있다

6·2 지방선거가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에 전국적으로는 1만5천명,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천여명에 이르는 후보자가 나설 것으로 전망돼 유례없이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는 19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대거 등록을 하게 되면 과열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다 선관위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건은 180여건에 이른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7명은 지난달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심성 관광 등을 보낸 혐의로 선관위로 부터 경고조치를 받았고,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해 말

군수의 처직 등을 홍보하는 책자 수만부 배부한 전남 모 지역 단체장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선거 때마다 이처럼 불·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당선이 목을 매는 후보자와 금품이나 향응을 당당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유권자의 탓이 크다. 지난 민선 4기에서 당선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22명 가운데 8명이 낙마한 것도 부정선거 등 각종 비리 때문이다. 검찰이 10일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선거사법전담 수사반원 외에 특수부 등 총 1천100여명의 사상 최대 수사인력을 동원해 선거사법을 뿌리 뽑기로 한 것도 과열·혼탁에 대한 방증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의 부정선거 척결은 단속 만으론 한계가 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공명선거 정착에 의지가 없다면 '한 걸'이 될 수도 있다. 명절을 앞두고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불·탈법의 발 걸음부터 거두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강채미



올 설날에도 '명절증후군'을 미리 걱정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명절 전후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명절에 힘든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들에게 많이 생긴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잠을 설치게 되고, 명절이 끝난 후에는 근육통 같은 육체적 피로에 시달리기도 하는 등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명절증후군, 과연 어떻게 극복하는

음식을 만들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음식을 만드는 중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전을 부치게 되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므로 분담한 일을 바꿔하거나 자주 쉬어주는 것이 좋다. 똥친 근육과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데는 두피 마사지가 효과가 있다. 두피를 마사지 할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아래쪽(지문)이 두피에 닿도록 세워서 한

명절 증후군

것이 좋을까? 우선 명절 동안 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해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한다. 예 간소화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평균 다섯 번 처리된 밥상을 세 번 처리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거나 새로운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뷔페 방식을 접목하는 '퓨전식 상차림'도 적용해 본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남성들에게도 역할을 제시해 준다. 명절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설거지다. 설 거 없이 나오는 수많은 그릇들을 설거지 하다 보면 허리와 등이 빠근해진다. 높이 10~15cm의 발판을 마련해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고 설거지를 하면 허리 부담이 적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또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허리를 앞으로 뒤로 좌우로 구부리고 펴주어야 한다. 만약 허리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다음날 온찜질을 해주고 따뜻한 찜자리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 날카로운 손톱이 두피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피 마사지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것이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효과가 크다. 웃음은 긴장을 이완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 진통효과가 큰 엔도르핀을 생성시키고 근육을 한꺼번에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켜 준다. 고생하는 주부에게는 남편 등 가족의 격려와 배려가 필요하다. 보상의 표현으로 선물을 하거나 여행가기 또는 명절 전 후에 집안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잠시라도 적절한 휴식을 취해서 육체적 피로를 줄이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초래되는 근육 긴장의 이완을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명절을 보내고 나서도 어깨나 허리 등의 근육통이 남아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울화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대포 통장 확산... 죄의식 없는 거래가 더 문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포 통장 판다. 삽니다." 이렇게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연락처 올려놓은 사람이 즐비하다. 불법자금을 뺏아들이려는 사람들이 대포 폰 및 개씩, 대포 통장도 몇십 개씩 만들어 쓰기 위해 이런 걸 활용한다고 들었다. 대포통장의 공급처인 인터넷이 문제다. 여기에 들어오면 누구나 쉽게 팔거나 살 수 있다. 그래서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이 세 가지를 합쳐 이른바 '대포 3종 세트'라고 부른다고 한다. 여기에 요즘은 대포 아이디

와 대포카드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들만 이용하는 걸로 아는 이 3종 세트를 이제는 일반 시민들까지 활용하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들이 확산되면 필수목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나쁜 범죄와 사기수법, 정직하지 못한 사회 분위기로 빠져들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범죄행위란 걸 느끼지도 못하고 죄의식을 아예 가지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그것 아닌가. <▲이민경·광주시 동구 대의동

기고

배양자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낙산주변에 산불이 발생해 커다란 피해를 냈다. 처음 화재가 발생한 지 10시간쯤 지났을 때 "불길이 잡혔다."라며 화재진압 중이던 산불진압용 초대형 헬기는 비무장지대 산불지역인 고성으로 이동되었다. 그러나 이후 바람이 거세져서 남아있던 불씨가 되살아났고 불이 낙산사 쪽으로 옮겨가 낙산사는 전소되고 보관중이던 보물 2점과 유형문화재 4점이

없었고, 예방접종이 늦게 시작된 만성 질환자와 노인의 예방접종률이 다른 대 상집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설을 계기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집단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전국민의 이동이 시작되고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이는 환경이 신종인플루엔자 전파의 적절한 환경이 되며, 명절분위기로 인해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

'신종플루' 방심은 금물

함께 소실되고 말았다. 언론에서 연일 사망자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 실시 후 그 효과가 나타나면서 감염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2009년 44주 인플루엔자 유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45명에 달하였으나 2010년 5주째에는 5.39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고비는 일단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몇 달 전만 해도 대중교통 이용 시 기침만 해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유사환자가 감소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행기준인 2.6명을 넘고 있어 아직 유행이 끝난 것은 아니며, 항바이러스제 내성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긴장을 늦추고 있지 않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인 영유아의 2차 예방접종이 아직 끝나지

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뒤돌아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자녀들 중 적어도 한 명은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은 볼을 보 듯 뻔한 사실이다. 유행할 명절이 기대하는 우리에게 낙산사 화재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라남도 및 시·군 보건소에서는 설 명절 동안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역,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339 응급정보센터를 통해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및 설 명절에 운영되는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민들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건강관리에 힘쓰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이 높은 고위험군은 지속적인 시일 안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 <전남도 복지 여성국장>

소나무 불법 채취 처벌수위 높아야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 미리 사 둔 땅에 좀 썩 작은 나무를 미리 심어두고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저런 조공수를 알아보았다. 소나무의 경우 한 그루에 적게는 수백만원, 비싼 것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자연산 소나무가 많았다. 조경업자들을 만나 보고 나무가 거래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이 수천만 원짜리 나무가 곳곳에서 불법 채취돼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나무나 기타 조경수 등 야생 수목은 그것을 캔 장소와 시기, 캐도록 허가한 증명서

와 반출증(생산자 확인증)이 있어야 하는데 나무를 불법으로 캔 것이 문제가 되고 생산지 증명서 없이 단속이 돼도 과태료 처벌만 받으므로 전국적으로 이런 불법 거래가 횡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소나무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소나무를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생산지(반출증) 증명서 없는 경우 약소한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無等鼓

인도는 사람보다 신이 더 많이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신은 본체가 천상에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 이른바 '화신(化身)'이다. 인도의 옛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아바타'(Avatar)다. 힌두교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에게도 마트스야(물고기), 쿠르마(거북이), 바라하(뱀뱀지) 등 10개의 화신이 있었다.

인터넷 누리꾼들의 아바타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샐러리맨이 가상세계에선 황제나, 공주로 군림하는 경우가 흔하다. 대리만족이다. 이런 분신(分身)은 정치의 세계에서 도 많다. 이른바 유명 정치인의 대리인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후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아바타 自治



인기있는 누군가와 유전자 가까움을 주장하며 표를 얻어보려는 심산일 것이다. 세종시 수정 정국에서도 아바타는 등장한다. 시사평론가 진중권씨는 최근 "정중한 총리는 정권권의 대표적인 아바타"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총대신하는 가상육체로 의미가 바뀌면서 또 한 번의 전성시대를 맞는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다. 아바타는 인간 육망의 상징이다. 주인공 제이크 실리반은 황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이지만, 그의 아바타는 나비족을 구하는 용맹스런 전사다. /김주정 정치부장 jnews@kwangju.co.kr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체육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